

美 연준 '빅컷'에 한은 10월 인하 기대감... 집값·부채 관건

물가안정·내수부진은 기준금리 인하 뒷받침 이창용 총재 "여러 경제지표 보고 시점 판단"

마침내 미국 연방준비제도(연준·Fed)가 '빅컷'(기준금리 0.50%p 인하)과 함께 통화정책 전환(피벗)에 나서면서, 한국은행의 10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.

최근 안정된 물가와 부진한 내수 경기만 보자면 당장 기준금리를 낮춰도 이상하지 않지만, 가계대출이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을 이끄는 상황에서 한은으로서는 금리 인하나 자칫 부동산과 가계부채에 불을 지를 위험까지 살피아야 한다.

결국 다음 달 11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에 앞서 9월-10월 초 관련 지표들에서 집값과 가계대출 진정세가 확인돼야만 한은의 피벗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.

◇4년반만의 美 통화완화 전환
연준은 9월 17-18일(현지시간)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(FOMC)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(기준금리) 목표 범위를 5.25-5.50%에서 4.75-5.0%로 0.5%포인트(p) 낮췄다.

연준의 금리 인하는 코로나19 팬데믹(감염병 대유행) 당시였던 2020년 3월 이후 처음으로, 사실상 4년 반 만에 글로벌 경제·금융을 좌우하는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에서 완화로 돌아섰다.

더구나 이날 공개된 새 점도표(FOMC 위원들의 향후 금리 수준 전망을 표시한 도표)에서 올해 말 금리 전망치 중간값도 5.10%에서 4.40%로 낮아졌다. 현 금리 수준(5.25-5.50%)을 고려할 때 연말까지 0.5%p 추가 인하도 가능하다는 뜻이다.

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'빅컷'의 배경에 대해 "인플레이션(물가상승) 상황 위험이 줄었지만, 실업률상방 위험은 커졌다. 노동시장이 확실히 냉각됐다"며 주로 고용악화 상황을 근거로 들었다.

◇'우리도 낮춰야' 커지는 인하압력
연준의 빅컷으로 한은은 더 큰 금리 인하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. 정부·여당을 중심으로 '이자 부담에 따른 소비 위축 등 경기를 고려해 기준



코스피·코스닥 소폭 상승 19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.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.39포인트(0.21%) 오른 2,580.80으로,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6.31포인트(0.86%) 오른 739.51로 장을 마쳤다. /연합뉴스

금리를 낮춰야 한다'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가운데, 이제 미국까지 빅컷으로 피벗을 시작한 만큼 '우리도 금리 인하기로 경기 하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'는 목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.

한은도 피벗의 가장 큰 전제 조건인 물가 안정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. 8월 소비자물가지수(114.54) 상승률(전년동월대비)은 2.0%로, 2021년 3월(1.9%)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.

"고물가·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내수의 핵심 부문인 민간소비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"며 "2020년 말 대비 올해 8월 말 생활물가 누적 상승률은 16.9%로 고령층이나 저소득가구 등 취약계층 구매력이 더 크게 위축됐을 것"이라고 진단했다.

조달청, 23일부터 '나라장터 상생세일'

580개사 1만6천86개 상품...노트북·컴퓨터 최대 45.5% 할인

조달청은 19일 "조달기업의 판로 개척을 촉진하고 수요기관에게는 예산절감의 기회를 제공하는 '2024년 하반기 나라장터 상생세일'을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주간 개최한다"고 밝혔다.

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업체 중 참여의사를 밝힌 업체의 제품을 공공기관에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사로 상·하반기 연 2회 운영된다.

'나라장터 상생세일'은 조달청 나라

할인판매하며 이는 지난해 하반기(489개사, 9천753개 상품) 대비 각각 18.6%, 64.9% 증가한 규모이다.

참여 상품들의 평균 할인율은 9.2%로, 5% 초과 10% 이하 상품이 1만305개(64.1%)로 가장 많고 특히 학교 등에서 수요가 많은 노트북·컴퓨터의 경우 평균 22.1%, 최대 45.5%까지 할인 판매한다.

할인 상품 목록은 오는 23일부터 종합쇼핑몰(shopping.g2b.go.kr)의 '할인 행사/기획전' 코너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. /안태호 기자

3년 이상 일 안하고 싶 청년 8만명 넘었다

장기 미취업자 3명 중 1명꼴...미취업 기간 길어질수록 비중 ↑

3년 이상 취업하지 않은 청년 중 직업 교육을 받거나 취업 준비를 하지 않고 '집에서 그냥 쉬' 청년이 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8.9%(6만9천명), '육아·가사를 했다' 14.8%(3만5천명), '진학 준비를 했다' 4.6%(1만1천명) 등의 순이었다.

19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청년층(15-29세) 부가 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최종 학교를 졸업(수료·종퇴 포함)했으나 3년 이상 취업하지 않은 청년은 지난 5월 기준 23만8천명이었다.

미취업 기간별로 봤을 때 '집에서 그냥 쉬' 청년의 비중은 3년 이상일 때가 가장 높았다.

코로나19 이후 최근 3년(2022-2024년) 중 가장 큰 수치다.

그냥 쉬었다는 응답은 미취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20.5%에서 6개월 이상-1년 미만일 때 26.4%로 상승했다.

이들 중 주된 활동으로 '집 등에서 그냥 시간을 보냈다'고 응답한 청년은 8만2천명(34.2%)이었다.

1년 이상-2년 미만에서는 20.6%로 비중이 줄었다가 2년 이상-3년 미만은 30.3%, 3년 이상일 때 34.2%로 상승했다.

3년 이상 장기 미취업 청년 3명 중 1명 이상이 직업 훈련이나 취업 시범 준비, 구직활동 등을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보냈다는 의미다.

학교를 졸업한 후 3년이 지나도록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취업을 포기하는 청년이 늘어나는 것으로 풀이된다.

이러 '취업 관련 시험 준비를 했다' 2

실제로 취업 준비를 했다는 대답은 6개월-1년 미만일 때 54.9%에서 1년-2년 미만일 때 50.8%, 2년-3년 미만일 때 45.1%, 3년 이상일 때 34.2%로 점차 하락했다.

여기서 취업을 위한 활동은 구직활동과 직업 훈련, 취업 시범 준비를 위해 도서관·학원을 다니는 비용 등을 합친 것이다.

3년 이상 미취업 청년 중 집에서 그냥 쉬 청년은 2021년 9만6천명에서 2022년 8만4천명, 2023년 8만명으로 점차 감소하다 올해 8만2천명으로 늘며 증가 전환했다.

코로나19 이전인 2018년(6만4천명), 2019년(6만4천명)과 비교하면 절대값으로도 여전히 많은 숫자다.

취업을 원하고 할 수 있지만, 임금 수준 등 조건이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할 것 같아 취업을 단념한 '청년 구직 단념자'도 증가하고 있다.

1-5월 월평균 청년층 구직단념자는 1만2천17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(10만8천525명)보다 약 1만1천여명 늘었다.

전체 구직단념자(38만7천명) 중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31.1%였다.

광주경제일자리재단, 온라인 플랫폼 MD 상담회 개최

(재)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(이하 경제일자리재단)은 19일 "최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광주사회경제박람회에 참여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온라인플랫폼 입점 지원을 위한 MD상담회를 개최했다"고 밝혔다.

사가 참여해 입점 및 판로 개척을 돕는 시간을 가졌다.

상담회에는 ▲11번가 ▲롯데온 ▲오아시스 ▲우체국쇼핑 ▲지마켓 ▲현대홈쇼핑 ▲KT알과 등 e-커머스플랫폼

특히 정산과정 및 판매 수수료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집중했다.

참여 사회적기업들은 입점을 위한 상세페이지 작성노하우, 보유한 상품 판로에 유리한 플랫폼 및 판매 확대를 위한 프

로모션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.

상담을 완료한 소상공인들은 MD와 논의를 통해 입점 진행절차를 진행하게 된다.

일부 소상공인의 경우 플랫폼 입점 후 매출 확대를 위한 라이브커머스 진출에 대한 제안을 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며, 박람회 찾은 관람객들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물품을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입할 수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. /정승윤 기자

실리를 따진다면 가성비 좋은 피닉스입니다!

1. 믿을 수 있는 100% 국내공정

2. 신속하고 확실한 A/S

3. 합리적인 가격에 고퀄리티 품질

FREE 전국 택배 무료 배송!

중고 골프채 보상 판매!

영무SP sports

062) 653-4141

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(백운동 644-33)

www.sunparkgolf.com